

## 대선 사전선거운동 대구서 첫 적발

### 산악회 지부장 경고

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적발돼 대구시선관위의 경고를 받았다.

대구시선관위는 27일 한나라당의 특정 대선주자를 대구에 초청해 강연하도록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

'OO산악회' 대구경북지부장 K씨를 경고조치하고, 산악회 지부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.

시 선관위는 "K씨는 지난해 12월부터 'OO산악회'를 주도적으로 결성했으며, 지난 1일 대구 모 호텔에 회원 170여명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산악회 행사와는 관련이 없는

특정 대선주자 초청 강연을 기획하고, 축사 및 환영사 등을 통해 특정 대선주자를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다"고 밝혔다.

시선관위는 이처럼 각종 포럼, 산악회, 팬클럽 등이 사전선거운동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들 단체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.

최곤기자 kons@yeongnam.com